

바다에서 세월을 먹고 이어싸나 허~

잠녀를 만나다-김춘심 할머니

등록 : 2010년 03월 16일 (화) 19:45:21
최종수정 : 2010년 03월 16일 (화) 19:45:2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울릉도 물질 10년에 평생할 고생을 다했다”넋두리
사고로 ‘바다’ 떠난 뒤에도 결혼 후 다시 바다로
귀동냥 공부·소리 아쉬움에 정식 과정 밟는 의지파

고사리를 꺾으러 간 길,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던 할미꽃 하나가 눈에 밟힌다. ‘곰다’ 한 마디에 그냥 가도 될 것을 오랜 세월 서로를 보고 살았던 어머니 생각에 잠녀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고인다. “100미터를 가려해도 서너번은 쉬어야 할만큼 세월을 먹은”어머니가 할미꽃이 되어 일기장에 새겨진다.

제주에서는 귀했던 ‘딸’



▲ 김춘심 할머니

제주에서만큼은 아들보다 딸이 귀했다. 아들은 키우는 공만 있지만 딸은 제 밥벌이는 물론이고 재물을 모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해외에 처음 알려질 당시 잠녀는 ‘양성평등’의 상징이었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했고, 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으니 당연한 평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기뻐하기에는 숙명과도 같았던 그네들의 삶의 질곡은 아직도 쉽게 풀어지지 않아 가슴 아프다.

김춘심 전 금능어촌계장(65)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그랬다.

경선을 통해 당당히 ‘제주 첫 여성 어촌계장’이란 명함을 얻었던 김 할머니는 사실 울릉도에서 물질을 배웠다.

먼저 울릉도에 자리를 잡은 언니를 따라 가족 모두가 고향을 떠났다.

먹고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지만 그 곳에서도 제주 여자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다.

물질로 가게를 꾸린 어머니와 언니 덕분에 제주에서는 물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울릉도에서는 오히려 또래 친구들을 가르치며 바다에 갔다.



▲ 김춘열할머니

김 할머니는 “열 다섯인가 열 여섯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물질을 했다”며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친구들이 어깨너머로 하나 둘 따라하더니 지방해녀가 되더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포항으로, 다시 울릉도로 지겹게 바다를 보며 찾아간 길의 끝에 다시 바다가 있었다. “북면 천부 죽암동...” 당시 빌려 살았던 집 주소가 아직도 입에 달린다.

처음부터 물질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아기업개로 일나간 어머니와 언니 대신 조카들을 돌볼 계획이었지만 바다는 좀체 김 할머니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전복과 소라, 미역, 성게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망사리에 넣었다. ‘강꼬’ ‘낙배’라고 부르던 노 젓는 배에 사공까지 3~4명이 한 조를 이뤄 바다 한 가운데서 작업을 했다. 작업한 미역을 말리는 일도 제각각 해야 한다. 미역이 많을 때는 일당을 주고 손을 빌렸다.

김 할머니는 “각이 지게 날어 말렸다고 해서 ‘각미역’이라고 불렀다”며 “음력 3월에 작업한 것은 ‘이른 각’, 5월 작업한 것은 ‘늦각’이라고 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또래가 따라할 정도였다고 했지만 잠녀들에 대한 시선까지 고왔던 것은 아니었다.

김 할머니는 “울릉도에서의 10년 동안 평생 해야 할 고생은 다 한 것 같다”며 “속곳에 물적삼만 입고 작업하는 것을 보고 사람취급도 안 했다”고 털어놨다.

부지런하고 알뜰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제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같이 작업을 해도 손이 빠른 제주 잠녀를 일부러 찾으면서도 품삯을 줄 때는 차이가 컸다. 견디다 못한 일부 잠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역 파출소까지 찾아가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

김 할머니는 “억울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수협법’을 이기지 못했다”며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울릉도 사람이 되거나 바다를 사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풍선(風船)에서 기다리던 사공들이 긴 장대를 이용해 배에 오르는 잠녀들을 도와주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췌

#‘배운 도둑질’…잠녀를 지키다

미역이 한창 값이 좋을 때라 전복은 뒷전이 되기 일수였다. 1962년 리디노미네이션(Redenuation·화폐개혁) 전 일이다. “전복 1관에 200원이나 했나”하고 문을 켜 김 할머니의 입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 흘러나온다. “처음에는 생복(활전복)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먹지 않으면 감자와 바퀴 먹었지”. 홍해삼이며 홍합이 유명해지면서 전복 역시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나마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

울릉도에서의 물질은 갑작스런 사고로 막을 내렸다.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고막을 터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바다에 들어가는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서울 친척집에 살면서 양장을 배웠다. 한 동안 물 생활을 잘 하나 했지만 결혼과 함께 제주에 돌아온 김 할머니를 기다린 것은 또 바다였다.

‘배운 도둑질’이라고 금능 바다에 다시 몸을 의지했다. 20년 가까이 작업을 하다보니 조금씩 보이는 것이 이었다.

울릉도에서는 작업하러 나가면서, 아니면 굶은 날씨로 물질을 쉴 때 신세타령을 하듯 소리를 배웠다. 물질의 고단함이 온몸에 배기고 난 뒤에는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어촌계장이 됐다. 한창 때 300명이 넘었던 금능 잠녀가 반으로 줄었을 때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만 4년 동안 김 할머니는 비좁고 낡은 탈의장을 현대식 시설로 고치고 복지회관도 만들었다. 그런 수고에도 지금 금능 잠녀는 다시 반으로 줄었다.

꼬박꼬박 일기를 썼을 만큼 배움에 대한 의지도 강했다. 옛날 것을 잃어버려 아쉬움은 크지만 중학과정을 시작했던 1992년부터 써온 일기장이 몇 권이나 된다.

올해 고등과정을 마치면서 문학과 생물 교과우수상도 받았다. 지역에서 활동중인 예술단에서 해녀노래도 정식으로 배우고 있다.

김 할머니는 “뭐든 정식으로 배우려니 힘들다”며 “이렇게 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제주 잠녀’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답변하기가 미안해진다.

잠녀 개개인에게 그런 수고를 말기기에 그녀들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크기만 하다. 제대로 인정받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말만 변명처럼 우물거린다.